

【 말 씀 】

연합의 축복

한 고등학교에서 중창단을 지도하던 음악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창단의 생명은 균형 잡힌 화음입니다. 옆 사람의 음성이 여러분 소리보다 높으면 좀 더 큰 소리로 불러야 하고 여러분의 소리가 옆 사람들의 소리보다 높으면 약간 낮추어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사용하여 옆에 있는 사람과 균형 있게 불러야 합니다. 그러한 균형 속에서 중창단의 소리는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들리게 됩니다."

이 선생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 자기 내부의 욕망에만 집중하며 산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기심은 연합을 깨뜨리고 불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목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면 어떨까요?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사다난한 2023년, 모두가 어려운 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모였으니 자기 자랑과 험뜯는 말은 줄이고 서로를 배려할 때 따뜻하고 복된 추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서로 배려하며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시편 133편에서 잘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은 두 개의 세력으로 양분되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은 세력과 사울의 아들들을 왕으로 삼은 세력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치렀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지만, 열두 개의 지파로 이뤄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갈라진 마음을 달래 연합을 이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통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연합을 추구함으로써 화평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3편은 이러한 배경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전쟁을 치르며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미움과 상처를 넘어선 연합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고, 헤르몬 산의 이슬이 물줄기가 되어 유대 땅 전역에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불통과 단절로 인한 갈등이 없이, 시원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나의 목소리는 줄이고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요? 가정의 하나 됨과 연합이 이루어질 때, 다윗 시대 이스라엘에 임했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29일

(일반용)



대 | 한 | 예 | 수 | 교 | 장 | 로 | 회 |
AQ 제주성안교회

(63236) 제주도 중양로 470 www.jeuseongahn.org

전화 : (064) 745-9191 , 팩스 : (064) 745-9192

■ 추석 가정 예배 ■

1. 개 식 사 인 도 자

추석 명절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석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2. 사도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 찬 송 형제의 모습 속에 다 같 이

박정관

형제의 모습 속에

1. 형제의 모습 속에 보 이는 하 내 사랑 상이름 다 와-라
2. 우 리의 모양 중에 임 하신 하 내 영광

존 귀한 주의 재켜됐 으니 사랑 하며 섬 기 리
존 귀한 왕이여 기 계 시 니

4. 기 도 가족 대표

5. 성경 말씀 시편 133편 1-3절 다 같 이

- 1 형제가 함께 한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 2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
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 3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6. 설 교 연합의 축복 말 은 이

※ 인도자가 뒷면 설교란을 천천히 읽습니다.

7. 가족기도문 가족이 함께

※ 설교문 낭독 후 예배에 참여한 자가 함께 축복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올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명절에 함께 모여 가족
의 정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 가족이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남은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
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부모는 자녀를 더욱 아끼고 보살피며, 자녀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넉넉
한 한가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 찬 송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 같 이

김영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내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량양기원하네 -

9. 주기도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